제2절 고대 울진지역의 신앙

1. 산수유오(山水遊娛)와 울진지역

1) 화랑의 유오산수와 울진지역

울진을 비롯한 동해안 지방은 산천 경관이 수려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유오(遊娛)하였다. 특히 동해안로는 화랑도들이 산수를 유오하기 위해 자주 이용하였다. 화랑도(花郞徒)는 진흥왕이 사람의 올바르고 사악함과 선하고 악함을 파악하여 훌륭한 인재를 관료로 등용하기 위해서 만들었다.[1)]

이 화랑도 집단의 중심 인물은 화랑(花郞)이었으며, 이들은 도의(道義)를 연마하고 가악(歌樂)을 즐기면서 경관이 빼어난 산수를 노니며 즐겼다. 도의의 연마는 유교경전에 대한 공부를 통하여 이루었고,[2)] 가악을 즐긴 것은 전통적인 노래인 향가(鄕歌)를 즐긴 것으로서[3)] 이를 통해 집단의 결속을 다졌다. 그리고 산수의 유오(遊娛)를 통해 이들은 심신을 단련하고 일체감을 형성하였다.[4)]

화랑들이 산수를 유오할 때 가장 많이 찾은 곳은 동해안의 강릉 지방이었다. 《삼국유사》에 “양가의 남자로써 덕행이 있는 자를 뽑아 화랑이라 하였다. 처음에 설원랑을 받들어 국선으로 삼았는데 이것이 화랑 국선의 시작이다. 그 까닭으로 명주에 비석을 세웠다”라고 한 기사가[5)]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외에 화랑들이 산수를 유오한 지역은 여러 곳이 있었는데 울진지역도 그 중의 하나였다. 이를 보여주는 것이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월송정은 군의 동쪽 7리에 있는데 우거진 소나무가 1만 그루이고 흰 모래는 눈과 같았으며, 세간에 전해져 오는 말에 신라 선인인 술랑(述郞)들이 이곳에서 놀다가 쉬었다”[6)]라고 한 기사이다.

술랑은 원랑(原郞) 등과 더불어 신라의 4선(四仙)으로 추앙될 정도의 대표적인 화랑이다. 이 기사에 의하면 경주를 출발한 화랑 술랑(述郞)과 그의 낭도들은 울진지역에 와서 산수를 유오하다가 월송정에 휴식한 것을 알 수 있다.[7)]이는 울진지역이 화랑들이 산수를 유오하는 곳의 하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1) 《삼국사기》권 제4 신라본기 진흥왕 37년조.
2) 이는 임신서기석(壬申誓記石)에 두 명의 화랑이 3년 안에 논어·예기·좌전 등을 윤독할 것을 맹세한 것에서 알 수 있는 바이다.
3) 《삼국유사》권 제5 신주 제6 월명사 도솔가조.
4) 이기동, 1980, <신라 화랑도의 사회학적 고찰>《신라골품제사회와 화랑도》소수, 한국연구원 참조.
5)《삼국유사》권 제4 탑상 제4 미륵선화 미시랑 진자사조.
6)《신증동국여지승람》 권44 강원도 평해군 누정(樓亭)조.
7) 화랑들이 울진지역으로 유오하였다는 것은 안축의 시에 ‘有底仙郞同煮鶴’이라 한 구절에도 나온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권44 강원도 평해군 누정(樓亭)조 참조.

2) 헌화가(獻花歌)와 울진지역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화랑들이 유유할 정도로 울진지역은 산천 경관이 빼어난 곳이었다. 이러한 경관과 연계하여 주목되는 것이 헌화가(獻花歌)이다. 헌화가에 대한 《삼국유사》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성덕왕대에 순정공이 강릉태수로 부임하였다. 일행이 바닷가에 이르러 점심을 먹었다. 곁에는 바위벽이 있었는데 병풍처럼 바다에 닿았으며 높이는 천 길이나 되었다. 그 위에 철쭉꽃이 피어 있었다. 공의 부인 수로가 이를 보고 좌우에게 말하기를 '꽃을 꺾어바칠 자가 누구냐' 하니 종자가 말하기를 '인적이 닿은 적이 없습니다' 하고는 모두 할 수 없다고 사양하였다. 곁에 늙은이가


聖德王代純貞公赴江陵大守今寘州行次海汀晝饍傍有石嶂如屏臨海高千丈上有躑躅花盛開公之夫人水路見之謂左右曰折花獻者其誰從者曰非人跡所到皆辭不能傍有老翁牽牛而過者聞夫人言折其花亦作歌詞獻之其翁不知何許人也便行二日程又有臨海亭晝饍次海龍忽攬夫人入海公顛倒躃地計無所出又有一老人告曰故人有言衆口鑠金今海中傍生何不畏衆口乎宜進界內民作歌唱之以杖打岸

<사진 2-10> 《삼국유사》
수로부인조 헌화가 부분

있어 새끼 소를 끌고 지나가다가 부인이 하는 말을 듣고 그 꽃을 꺾어 또 노래를 지어서 바쳤다. 그 늙은이는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하였다.

곧 길을 떠나 2일 정도 갔는데 도중에 임해정이 있었다. 점심을 먹을 때 바다 용이 홀연히 부인을 붙잡아 가지고 바다로 들어갔다. 공은 엎어지고 자빠지며 땅을 쳤으나 어떤 계책도 나오지 않았다. 또 한 노인이 있어 고하기를 '옛 사람이 말하기를 여러 사람의 입은 쇠붙이도 녹입니다. 지금 바다속의 짐승이이라도 어찌 뭇 사람의 입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마땅히 관할 내의 백성들을 내어 노래를 지어 부르고 막대기로 언덕을 치면 부인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이 이를 좇으니 용은 부인을 받들고 바다에서 나와 바쳤다.[1)]

이 기사에서 강릉태수로 부임하기 위해 순정공(純貞公)이 부인을 대동하고 있는 것은 지방관이 가족을 데리고 임지로 가도 좋다고 하는 법[携家之任]이 실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가족을 데리고 가도 좋다고 하는 법은 법흥왕대에 처음 실시되었다.[2)]

순정공이 부인을 대동하고 강릉태수로 부임하기 위해 가는 길은 이른바 동해안로[北海通]이다. 이는 해변이라는 표현과 바다의 용[海龍]이 부인을 잡아 바닷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에서 확인되는 바이다. 따라서 순정공이 경주를 떠나 동해안로를 이용하여 강릉으로 갈 때 울진지역을 거쳐갔음은 물론이다.

위의 기사에 의할 때 순정공이 강릉으로 가는 길에 두 가지 일을 겪게 된다. 하나는 공의 부인이 바닷가의 험하고 높은 절벽 위에 만발한 철쭉꽃을 갖고자 하자 어떤 노인이 꺾어다가 부인에게 드리고 또 헌화가(獻花歌)라는 노래를 지어 바친 사건이다.[3)] 다른 하나는 임해정(臨海亭)이라는 곳에서 해룡이 공의 부인을 잡아가므로 공이 노인의 말을 따라 사람들로 하여금 해가(海歌)를 부르게 하고 해안을 막대기로 치게 하자 용이 부인을 다시 바쳤다는 사건이다.

노인이 철쭉꽃을 꺾어 바친 곳이나 해룡이 부인을 납치해간 임해정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알려주는 분명한 기록이 없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대략적인 위치만 추정해 보기로 한다. 임

해정은 그 명칭에서 미루어 볼 때 바닷가에 세워진 정자이다. 이곳에서 순정공은 수로부인(水路夫人)을 붙잡아 바다 속으로 들어간 해룡으로부터 부인을 되찾기 위해 계내의 백성[界內民]들을 모아 해가를 부르게 하였다. 이때의 계내(界內)는 강릉의 경내(境內)를 말하므로 임해정은 강릉의 경내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노인이 부인에게 철쭉꽃을 꺾어다 바치고 헌화가를 드린 곳은 어디일까. 이를 추론할 수 있는 단서는 철쭉꽃을 꺾은 곳에서 임해정(臨海亭)까지가 이일 정도의 행차 거리라는 점이다. 강릉의 경계 지역에서 이틀 정도 걸리는 거리라고 하면 삼척보다는 울진지역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고 하면 노인이 철쭉꽃을 꺾어 순정공의 부인에게 드리고 또 헌화가를 지어서 부르고 바친 곳은 울진경내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위치가 구체적으로 어디인지는 좀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1) 《삼국유사》권 제2 기이 제2 수로부인(水路夫人)조.
2) 《삼국유사》권 제4 신라본기 법흥왕 15년조.
3) 헌화가에 대한 풀이는 김완진, 1981, 《향가해독법연구》, 서울대출판부 참조.

2. 산천신앙(山川信仰)과 울진지역

1) 신라의 산천제의(山川祭儀) 체계

고대사회에서 제의는 국가운영 상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제사의 대상과 그것이 점하는 위치는 시기에 따라 변하였다. 통일 이후 신라는 통일된 사회환경에 맞겠끔 제의체계도 새로이 정비하였다. 이때 정비된 제의체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삼국사기》 권 제32 잡지 제1 제사조이다. 이에 의하면 신라의 제사체계는 시조묘(始祖廟) 제사, 신궁(神宮) 제사, 5묘(五廟) 제사, 사직단(社稷壇) 제사, 신성북문제(新城北門祭), 명활성남웅살곡제(明活城南熊殺谷祭), 산원제(蒜園祭), 견수곡문제(犬首谷門祭), 탁저제(卓渚祭), 본피유촌제(本彼遊村祭), 명산대천제(名山大川祭), 4성문제(四城門祭), 부정제(部庭祭), 4천상제(四川上祭), 4대도제(四大道祭), 압구제(壓丘祭), 벽기제(?氣祭) 등으로 나누어 진다.

이러한 제의의 대다수는 왕실과 관련되는 제사이거나 왕도 부근에서 행해진 제사이다.[1] 따라서 지방과 연관되는 제의체계는 명산대천제(名山大川祭)에 한정된다. 명산대천제에 포함된 산천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행해지는 제사의 대상이기 때문에 지역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산천이다. 이렇게 볼 때 명산대천제는 신라가 통일 국가를 형성한 이후 각 지역의 산천신앙을 왕실 및 중앙세력 중심으로 재편제하고 체계화하는 데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2]

명산대천제는 제사의 대상이 되는 산천의 중요도에 따라 대사(大祀)·중사(中祀)·소사(小祀)로 나누어졌고 각각에 해당되는 산(山)·천(川)·악(岳)·독(瀆)이 선정되었다. 대사·중사·소사에 속한 산천을 《삼국사기》 제사조에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대사에는 나력(奈歷)·골화(骨火)·혈례(穴禮)라고 하는 삼산(三山)이 속하였다. 대사에속한 3산은 신라 국도와 그 주위에 소재한 산으로서 국가를 진호하는 최고의 제사대상이었다. 중사는 오악(五岳)·사진(四鎭)·사해(四海)·사독(四?)이라고 하는 악(岳)·진(鎭)·해(海)·독(瀆)으로 나누어졌으며, 동서남북중의 방위에 따라 중요한 명산과 대천을 설정한 것이다. 소사에는 상악(霜岳)에서 서술(西述)에 이르기까지 24개의 산이 선정되었다.

대사나 중사에 속한 산천에 대한 제사는 왕이 친히 지내기도 하였다. 미추왕이 동으로 순행하여 동해에 망제(望祭)를 드린 것이라든가, 기림왕이 우두주(牛頭州)에 가서 태백산에 망제를 드린 것 등이[3]그 예가 된다. 그러나 소사는 그 중요도가 대사나 중사 보다 낮았기 때문에 왕이 친히 제사지내지 않고 지방관이 국왕을 대신하여 제사를 드렸다.

---

1) 신종원, 1984,〈삼국사기 제사지연구-신라사전의 연혁 내용 의의를 중심으로-〉,《사학 연구》 38집 참조.
2) 이기백, 1974, <신라 5악의 성립> 《신라정치사회사연구》 소수, 일조각 참조
3)《삼국사기》권 제2 신라본기 미추이사금 3년조 및 기림이사금 3년조.

2) 소사(小祀)와 울진지역

신라의 산천제의 체계에서 중사와 소사는 지방의 산천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가운데 명주 관할 하에 있는 지역의 산천으로서 중사나 소사에 편제된 산천은 다음과 같다. 먼저 중사에 편제된 것으로는 북진(北鎭)으로 편입된 비열홀군[比烈忽郡 : 안변]의 웅곡악(熊谷岳)과 북해(北海)로 편입된 실직군[悉直郡 : 삼척]의 비례산(非禮山)이 있다. 소사에 속한 산천으로는 고성의 상악[霜岳 : 금강산], 수성군[간성]의 설악(雪岳), 우진야군[于珍也郡 : 울진]의 악발[岳髮 : 발악(髮岳)]이 있다. 울진의 악발이 상악[금강산]·설악과 함께 소사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이 산이 통일 이후에도 상당히 중시된 산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신라가 통일 이후 제의체계를 정비하면서 각 지방의 산들 중에서 중요한 산을 중사나 소사에 편제한 것은 지방민을 위무함과 동시에 그 방면의 정치 세력을 진압한다고 하는 상징적 의미도 지니고 있었다.[1] 따라서 신라가 악발을 소사체계내에 편제하고 국가의 제사대상으로 삼은 것은 울진지역의 민들을 위무하면서 동시에 울진지역의 토착세력들의 힘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소사에 편제된 악발이 구체적으로 울진의 어느 산인지는 분명히 하기 어려우나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추론해 보고자 한다. 첫째, 악발이 소사에 들어있다는 것은 이 산이 울진지역의 다른 산들 보다 훨씬 중요한 산이라고 하는 점이다. 아마도 이 악발은 삼한시기 이래 울진지역에서 신성시된 산이었고, 울진지역이 신라에 편입된 이후에도 중요시되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이 산은 신라 시기에 소사의 대상이 된 만큼 후대에 와서도 역시 숭배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주목되는 것이 안일왕산(安逸王山)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안일왕산은 현의 서쪽 41리에 있으며 울진의 진산(鎭山)이었다.[2] 진산은 도읍이나 성시(城市)의 뒤쪽에 있는 큰 산으로 그 곳을 진호(鎭護)하는 주산(主山)을 말한다. 이 안일왕산에는 석성(石城)이 있었는데[3] 지표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안일왕 산성은 능히 사방을 조망할 수 있는 천혜의 산성지이며, 성내에는 극히 작은 편들이지만 삼국시대에서 고려초기에 걸친 회청색(灰靑色) 경질의 토기편들이 지표상에서 채집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토기편들의 존재에서 미루어 볼 때 안일왕성이 처음 축조된 시기는 삼국시대까지 올려볼 수도 있겠다.[4]

그런데 구군지(舊郡誌)에는 "실직국왕이 적을 피하여 이곳에 와서 석성을 축조하니 둘레가 753척이다"[5]라 하여 실직국왕이 이곳으로 피난와서 이 산성을 축조하였음을 전하고 있다. 이것은 안일왕산성이 매우 유서가 깊은 산성이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표조사보고서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산성은 삼국시기에 이미 군사적 요충지로서 축조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조선시대에 와서 이 산이 울진현의 진산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하면 신라가 통일 이후 소사에 편제한 울진지역의 악발산은 안일왕산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

1) 이기백, 1974, <신라 5악의 성립> 《신라정치사회사연구》 소수, 일조각, 215쪽.
2) 《신증동국여지승람》 권45 강원도 울진현 산천조.
3) 《신증동국여지승람》 권44 강원도 울진현 고적(古跡)조.
4) 대구대학교 박물관, 1998, 《울진군 성지유적 지표조사보고서》, 130~139쪽.
5) 울진군, 1984, 《울진군지》 울진읍 성곽 안일왕성조.

3. 굴신(窟神) 신앙과 울진지역

울진지역에서의 토착적인 신앙으로는 앞에서 언급한 산천신앙 외에 굴신(窟神) 신앙을 들 수 있다. 이 굴신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이 장천굴[掌天窟: 성류굴(聖留窟)]이다. 1960년대 초에 성류굴 개발 당시 이 굴 안에서 석검이 채집되었다고 한다.[1] 이는 성류굴이 선사시대에도 이용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삼국유사》에 의하면 이 장천굴에는 굴신이 살고 있었다. 이 장천굴의 굴신은 2천년 동안이나 굴신으로 있었으며, 보천(寶川)태자가 와서 수구다라니[隨求眞詮]을 염송하기 전까지는 부처의 이름을 듣지 못하였다고 한다.[2] 이는 장천굴의 굴신이 전통적인 토착신임을 반영해 주는 것이다.

고대사회에서 굴신은 국가를 수호하는 신으로서 중요한 제의의 대상이 되는 신이었다. 이를 보여주는 것이 고구려의 수신(隧神)이다. 《삼국지》 동이전에 의하면 고구려에서는 매년 10월의 국중대회(國中大會)에 수신(隧神)을 맞이하여 제사지냈는데 나무로 만든 수신[木隧]을 신의 자리에 안치하였다.[3] 이 수신은 나라 동쪽 큰 굴에 살고 있었으므로 수신은 바로 굴신(窟神)이라 할 수 있다.

고구려사회에서 굴신이 국중대회에서 주신(主神)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원용할 때 장천굴의 굴신도 울진지역에서 주신의 위치를 차지하는 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장천굴의 굴신이 2천년 동안 굴안에 살고 있었다고 한 것은 이 굴신에 대한 신앙의 연원이 상당히 오래되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이 점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이 소도(蘇塗)이다. 소도는 삼한시기에 각 소국에 별읍(別邑)으로 존재하였는데 여기에 큰 나무를 세우고 거기에 방울과 북을 달아 귀신을 섬겼으며, 또 죄를 짓고 이곳으로 도망해 온 자들은 잡을 수 없었다.[4] 따라서 소도는 일종의 신성지역이었던 것이다.[5]

삼한 시기에 울진지역을 기반으로 하여 성립된 소국은 우중국[優中國: 우유국(優由國)]이었다. 따라서 이 우유국에도 소도로 불릴 수 있는 별읍이 있었고 신성지역으로 보호되었을 것이다. 그 별읍이 어디에 위치하였는지는 단정하기 어렵다. 이곡(李穀)의 동유기(東遊記)[6]에서 보듯이 장천굴 내부의 모습은 이루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기기묘묘하여 감탄을 자아내고 경외심을 일으키게 하는 신비성을 지녔다.

이렇게 신비한 모습을 가진 장천굴은 이 지역민들에게는 신성한 지역으로 관념되었을 것임은 당연하다. 따라서 장천굴과 그 일대는 일종의 소도와 같은 곳으로서 고대 울진사회에서 신성지역으로 기능하였을 것이며, 이 굴신은 울진지역의 토착신으로서 중요한 제사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울진지역에서는 우중국 이래 성류굴 지역을 신성지역으로 여기고 지역 전체와 관련된 중요한 제의 행사에서는 장천굴의 굴신을 모셔다가 신좌(神坐)에 두고 제사를 드렸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장천굴의 굴신은 고대 울진지역에서 대표적으로 신앙된 토속적인 신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1) 울진군·안동대학교, 1991, 《울진의 문화재》, 36쪽.
2)《삼국유사》에 권3 탑상 제4 대산오만진신(臺山五萬眞身)조.
3)《삼국지》동이전30 고구려조.
4)《삼국지》동이전30 한조.
5) 송화섭, 1992, <마한소도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최광식, 1994,《고대 한국의 국가와 제사》, 한길사 참조.
6)《가정집(稼亭集)》권5 기(記) 동유기(東遊記).

4. 사찰의 건립과 울진지역

1) 고대 울진지역 사찰

법흥왕대에 불교가 공인된 이후 신라에서는 각처에 많은 사찰이 세워졌으며, 뛰어난 고승과 학승들이 배출되었다. 이 과정에서 울진지역에도 불교가 전파되고 사찰들이 건립되었다. 울진지역에 세워졌던 사찰로서 현존하는 사찰이나 폐사(廢寺) 가운데 신라시대에 창건된 것으로 추정되는 것으로는 불영사(佛影寺), 전대흥사지(傳大興寺址), 전신흥사지(傳新興寺址), 전정림사지(傳淨林寺址), 수진사(修眞寺), 전성류사지(傳聖留寺址), 전천량암지(傳天糧庵址), 전오봉사지(傳五峯寺址), 광흥사(廣興寺), 전대천사(傳大川寺) 등이 있다.[1)]

이 가운데 창건연기를 알 수 있는 것은 불영사·성류사·천량암 정도이다. 불영사는 불귀사(佛歸寺)라고도 하였는데[2)] 의상(義相)대사가 신라 진덕왕 5년(651)에 세웠다고 한다. 그 창건연기를 보면 의상대사는 천축산(天竺山) 앞의 큰 못에 살고 있던 아홉 마리의 용을 쫓아내고 그 자리에 절을 지어 구룡사(九龍寺)라 하였는데, 그후 오랜 세월이 지나 절의 정서편 산에 있는 바위 형상이 흡사 부처님이 현신한 모습의 그림자가 못에 항상 비춰지므로 절 이름을 불영사라 개칭하였다. 그후 법사가 영주 부석사(浮石寺)와 봉화 각화사(覺華寺)를 창건하고 15년 동안 돌아다니다가 다시 불영사로 돌아오니 이 마을의 한 늙은 노인이 말하기를 '부처님이 다시 돌아오셨다.'라 하여 이 절은 백암산(白岩山) 불귀사(佛歸寺)로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3)]

성류사(聖留寺)는 성류굴과 관계가 있다. 이 성류굴은 장천굴(掌天窟)이라고도 하였는데 《삼국유사》에 의하면 장천굴신은 신라 제31왕인 신문왕[神文王 : 정신왕(淨神王)]의 아들인 보천태자가 수구다라니(隨求多羅尼)를 암송하는 것을 듣고 보살계를 받아 불교에 귀의하였으며 굴신이 보살계를 받은 다음날 굴은 형적이 없어진 것으로 나온다.[4)] 이에서 미루어 볼 때 성류사는 장천굴신이 불교에 귀의한 후 세워졌으며, 성류사라는 명칭도 보천태자가 이곳에 머물렀다는 사실에서 붙여진 것이라 할 수 있다.

1976 성류굴 개발 당시 굴 입구에 면적 5~6평 가량의 공터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 와편들이 무더기로 출토되었다는 관리소 측의 증언으로 미루어 보아 성류굴 입구 부근이 성류사의 터로 추정된다. 그 규모는 암자 정도로 보인다. 또한 30년전 성류굴 5호 광장에서 인골과 곱돌로 만들어진 호신불(護身佛)이 무더기로 출토되었다고 한다.[5)]

천량암(天糧庵)에 대해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세간에 전하는 말로는 원효가 주석하고 있을 때 바위 사이에 구멍이 있어 쌀을 산출하였기 때문에 이름한 것이다"[6)]라 하여 원효가 머물렀던 곳으로 나온다. 원효(617~686년)는 중국에 유학하지 않고도 깨달음을 얻은 고승으로서 그 명성을 당나라에까지 떨쳤다. 이 천량암은 현재의 울진군 근남면 행곡 2리 백연봉 동남쪽 청량산골 암벽 사이에 있는 석굴이다. 이 지역의 마을은 미고[米庫 : 쌀고]라고 하였는데 그 뒤 이것이 변하여 쌀구?살구로 되어 행곡[杏谷 : 쌀고]이라고 마을 이름을 고쳐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7)]

이외에 대흥사는 신라의 의상대사가 창건한 것으로 전해오고 있고, 수진사는 신라 신문왕대에 창건되었으며, 2개의 삼층석탑이 있었다고 전한다. 그리고 대천사는 근남면 탑평에 있었던 절로 신라시대에 창건되었다고 전하는데 이 절의 탑은 1973년에 울진읍 월변리 동림사(東林寺)로 옮겨졌다고 한다.[8)]

1) 울진문화원, 1998,《울진의 사찰》울진의 유적 III집, 16~18쪽 및 울진군·안동대학교, 1991,《울진의 문화재》, 47~50쪽 참조.
2)《신증동국여지승람》 권44 강원도 울진현 불우(佛宇)조.
3) 울진문화원, 1998, 《울진의 사찰》 울진의 유적 III집, 20쪽 .
4)《삼국유사》권 제3 탑상 제4 대산오만진신(臺山五萬眞身)조.
5) 울진문화원, 1998, 《울진의 사찰》울진의 유적 III집, 56쪽.
6)《신증동국여지승람》권44 강원도 울진현 불우조.
7) 울진문화원, 1998,《울진의 사찰》울진의 유적 III집, 55쪽.
8) 울진문화원, 1998,《울진의 사찰》울진의 유적 III집, 45, 51, 58쪽 참조.

2) 신라의 지방지배 강화와 울진지역의 사찰건립

그런데 사찰의 건립은 순수한 종교적 측면에서 세워지기도 하지만 중앙지배층이 지방의 분립성을 극복하고 전통적인 신앙을 불교 신앙으로 흡수하기 위해서 세워지기도 하였다. 불교는 초부족적(超部族的) 종교로서 각종 토착신앙을 흡수하는 흡인력을 가졌다. 경주지역의 경우 삼한시기의 신성지역인 소도로 생각되는 전불시(前佛時)의 7개의 가람터[七伽藍墟]에 흥륜사(興輪寺) 등의 중요 사찰이 세워졌다고 하는 사실이[1] 그 예가 되겠다. 이리하여 신라 왕실은 불교를 통해 왕실 중심의 중앙집권체제를 뒷받침하는 사상체계를 마련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불사 창건이 정치적 목적에서 이루어지기도 하였다고 할 때 울진지역에 세워진 사찰 가운데는 이러한 정치적 목적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사찰로는 의상이 세운 불영사와 보천태자와 관련되는 성류사이다. 먼저 의상대사의 불영사 창건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한다. 의상은 중국에 유학할 당시 당나라가 신라를 공격하려는 기밀을 미리 알고 이를 본국에 알려 대비하게 하는 등[2]호국을 위해 많은 활동을 하였다. 그리고 그가 소백산맥 일대를 중심으로 세운 화엄 10찰은[3] 국가를 보호하고 지역세력을 억제하는 기능을 수행하였다고 한다.[4]

울진지역은 울진봉평신라비에서 보듯이 중앙정부에 대해 상당한 저항을 하였던 곳이었다. 그리고 장천굴신을 오랫동안 섬긴 데서 짐작할 수 있듯이 전통적인 신앙을 통한 공동체적 의식이 강인하게 유지되어 온 곳이었다. 이러한 지역을 순치하기 위해 의상은 불영사를 창건하고, 보천태자는 장천굴신을 불교에 귀의시켰던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굴신이 불교에 귀의한 후 굴의 형체가 없어져 버렸다는 것은 울진지역의 토착적인 신앙체계가 불교신앙 체계로 완전히 흡수·정리된 것을 반영하는 것이며, 아울러 토착신을 숭앙하는 세력들이 해체되거나 약화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의상의 활동이 호국적인 성격을 다분히 지니고 있다고 하는 측면과 연계시켜 볼 때 그가 불영사를 창건한 것은 울진지역의 민심을 위무하고 이 지역 세력들의 이탈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불영사에 대한 전승설화에서 의상이 호국사찰인 영주 부석사(浮石寺)와 봉화 각화사(覺華寺)를 창건한 이후에 불영사의 다른 이름인 불귀사가 사용되었다고 하는 것도 이를 방증해 준다고 할 것이다.

성류사의 경우는 보다 분명하게 그 성격을 추구해 볼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하였지만 성류사가 세워진 장천굴은 울진지역에서는 일종의 신성지역이었으며, 장천굴신은 전통적인 신앙의 대상이었다. 2천년 동안이나 이 굴에 살고 있었던 굴신(窟神)이 보천태자가 울진에 와서 수구다라니를 염송하기 전까지 부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는 것은 전통적인 신앙이 이 지역에 상대적으로 강인하게 유지되어 왔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지방이 자신의 전통적인 신앙을 강인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중앙의 입장으로서는 결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었을 것이다. 따라서 중앙에서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처가 필요하였을 것이다. 보천태자가 장천굴신을 불교에 귀의시키고 성류사를 세운 것은 국가[邦家]를 보익(輔益)하는 것과 연계될 수 있을 것이다.

울진지역은 울진봉평신라비에서 보듯이 중앙정부에 대해 상당한 저항을 하였던 곳이었다. 그리고 장천굴신을 오랫동안 섬긴 데서 짐작할 수 있듯이 전통적인 신앙을 통한 공동체적 의식이 강인하게 유지되어 온 곳이었다. 이러한 지역을 순치하기 위해 의상은 불영사를 창건하고, 보천태자는 장천굴신을 불교에 귀의시켰던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굴신이 불교에 귀

의한 후 굴의 형체가 없어져 버렸다는 것은 울진지역의 토착적인 신앙체계가 불교신앙 체계로 완전히 흡수·정리된 것을 반영하는 것이며, 아울러 토착신을 숭앙하는 세력들이 해체되거나 약화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1) 《삼국유사》 권 제3 흥법 제3 아도기라(阿道基羅)조.
2) 《삼국유사》 권 제4 의해 제5 의상전교조.
3) 화엄 10찰은 태백산의 부석사(浮石寺), 원주의 비마라사(毗摩羅寺), 가야산의 해인사(海 印寺), 비슬산의 옥천사(玉泉寺), 금정산의 범어사(梵魚寺), 남악의 화엄사(華嚴寺) 등이라고 한다. 화엄10찰에 대해서는 김복순, 1990, 《신라화엄종연구》, 민족사 참조.
4) 이기백, 1974, <신라 5악의 성립>《신라정치사회사연구》 소수, 일조각 참조.